논어 10편 향당 11장 · 원문·풀이

問人於他邦，再拜而送之。康子饋藥，拜而受之，曰：「丘未達，不敢嘗。」

독음 · 문인어타방 재배이송지 강자궤약 배이수지 왈 구미달 불감상

쉬운 풀이(요약) · 다른 나라에 안부를 전할 때는 사자에게 거듭 절해 보냈다. 약을 받았을 때는 감사히 받되 약성을 모르므로 함부로 먹지 않겠다고 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問 물을 문 문 / 人 사람 인 /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 他 다를 타 타

邦 나라 방 방 / 再 두 번 재 재 / 拜 절 배 배 / 而 말이을 이

送 보낼 송 송 / 之 갈 지 / 康 편안할 강 강 / 子 아들 자

饋 먹일 궤 궤 / 藥 약 약 약 / 受 이을 수 수 / 曰 가로 왈

丘 언덕 구 구 / 未 아닐 미 미 / 達 통달할 달 달 / 不 아닐 불

敢 감히 감 감 / 嘗 맛볼 상 상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